

2024 새해 이렇게

김산 무안군수

미래 신성장 동력 먹거리·도자산업 특화 육성



무안 대표 관광자원 45선 활용 다채로운 관광상품 개발 나설 것 전통시장 활성화 총력...청계면 일원 지역상권 거점 공간 조성

"9경(景)·9품(品)·9미(味)·9락(樂)·9길(路)의 무안 대표 관광자원 45선을 활용해 다채롭게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일보와 새해 인터뷰에서 "42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6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4780억원을 활용해 무안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민 행복추구권을 담보로 한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협상은 불가하다"며 반대 뜻을 다시 밝혔다.

김 군수가 내건 올해 군정 4대 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희망·배려·존중 등 무안형 도읍복지 강화 ▲농촌과 도시 상생 균형발전 지속 추진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 미래신성장 동력 발굴 등이 있다.

우선 지난해 선정·발표한 무안 대표 관광자원 45선을 개별·분야별 상품화할 방침이다.

KTX 무안공항역 개통에 따른 관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도리포권역을 해양관광명소로 중점 육성한다. 488억원이 투입되는 도리포권역 조성사업은 선셋갤러리, 해상탐방데크, 해남이 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회복도 노린다. 지난해부터 무안전통시장에서 열리는 '황토골 토요야시장'은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는 무안사랑상품권을 310억원 규모 발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벌어지는 청계면은 지역상권 거점 공간으로 거듭난다.

김 군수는 "하루 평균 1만1000명의 관계 인구가 드나드는 청계면 일원을 지역상권 거점 공간

으로 조성하면 상권이 점차 회복할 것"이라며 "골목상권과 함께 기업활동 강화를 위해 현재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5315억원 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무안을 복합문화센터 건립(3월)과 무안군 보건소 이전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시설은 농촌 지역 문화·복지·보건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일로·현경·운남·망운에 이어 올해는 무안읍·삼향·공단·청계 등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12억원을 투입한 '청계면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는 해제 만평항, 운남 도원항 등 4개 항에 대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를 추진해 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한다.

오룡 청사 부지에는 오룡복합문화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무안공공도서관이 각각 2025년,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

다. 전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에는 도비 200억원이 들어가며, 오는 7월 착공한다.

이 밖에도 ▲남악신도시 체육시설 확충사업 연내 착공 ▲남악중앙공원 복합놀이시설 조성 ▲남악 나들목 정체 해소 대체 도로 확보 추진 ▲'대죽도 여성길' 등 맨발산책로 5개소 조성 ▲무안군 위커피빌터 용역 추진 등이 현안 사업으로 꼽힌다.

'희망 주는 복지, 배려하는 복지, 존중하는 복지'를 내건 무안형 도읍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활성화 ▲청년취업 학습 패키지 운영 ▲76세 이상 여성 농업인 행복배우처 확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운영 등이 추진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무안 먹거리 산업과 도자 산업을 지역 우수한 교통 여건과 연계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특화 발전 시키겠다"며 총사업비 2832억원 규모 무안 먹거리 융복합 거점지구 조성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무안 도자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목포시 신항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착공

산업부 공모 선정...357억원 투입

목포시가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조감도)를 최근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8일 신항 일원에 연면적 약 3300㎡, 4층 규모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건립을 시작했다.

목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357억원을 투입해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민간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센터는 이 사업의 핵심 시설이 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해상풍력 유지관리·물류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항만물류 기반시설 구축 ▲발전



단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진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운영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령실 역할을 한다.

목포 신항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철재 부두와 함께 15만평 규모(49만5867㎡) 배후단지가 마련됐다.

목포시는 포화상태인 목포 신항의 물동량을 해

결하기 위해 해상풍력 전용 철재 부두(5만t급) 1선석과 2단계 배후단지(23만8000㎡)의 추가 건설을 위한 건의 활동을 하고 있다.

'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019~2040)과 '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2021~2030)에 이를 반영해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고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후 기업 유치를 추진해 목포 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기회발전특구' 정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풍력 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차질없이 구축해 시장 선점과 생태계 구축에 앞장섬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허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군 관계자가 '대학생 전입장려금'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전입 대학생에 200만원 지원

영암군이 지역에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학생 전입장려금'은 대학생에게 지역 정착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전입장려금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효과를 노렸다.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세한대·동아보건대·경운대 등 영암군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이 영암군 읍·면에 전입하면 장려금을 준다. 전입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전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입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신청을 받는 날의 다음 달 10일 안에 전입장려금을 영암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 학기 전입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8학기 총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학생 편의를 위해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전입신고' 행사도 운영하기로 했다.

우승의 영암군수는 "전입장려금 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대학생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나서겠다"며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문화 향유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수시로 발굴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지원제도' 도입

신안군이 지난해 12월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지원제도는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안군의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격려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러한 행정의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위해 공무원의 노력을 적극 장려하는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ilee@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